

“소방안전교육에 아름다운 선율을 더 하다”

나주시 의용소방대 음악봉사단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결성...지역 복지관·경로당 등서 공연 지역민 화답 초청 문의 쇄도...“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지역민에게 안전교육과 더불어 아름다운 선율을 감동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나주소방단원들이 소방안전교육에 음악을 접목한 공연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나주시 의용소방대 단원들로 구성된 음악봉사단은 특색있고 개성 넘치는 모습으로 지역민에게 봉사하자는 대원들의 뜻이 모여 지난 3월 결성됐다.

단원들은 생활안전 및 심폐소생술 강사와 같은 소방안전교육에 특화된 전문 자격을 보유한 이들로 오카리나, 팬플루트, 통기타 등 음악에 소질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됐다.

음악봉사단은 지난 3월19일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행사장에서 첫 무대를 선보인 이후 지역 요양병원, 복지회관, 경로당 등을 돌며 소방안전교육에 음악을 접목한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공연은 ▲심폐소생술 율동 ▲순가락 난타 ▲팬플루트 콘서트 등으로 지역민의 호응을 얻었다.

이들은 평소 생업과 의용소방대 봉사활동에 전념하면서, 저녁시간 틈틈이 의용소방대 사무실에 모여 연습을 진행한다. 실력을 키워 지역민들에게 조금 더 아름다운 선율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에 화답하듯 지역행사 자리 등에서 음악봉사단 초청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또한, 나주시 의용소방대 음악봉사단은 나주시 주관으로 진행되는 2022년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인 ‘안전한 마을 환경 만들기’ 분야에 당선됐다. 사업 보조금은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활용될 예정이다.

류정자 남평읍 여성의용소방대장은 “힘든 내색 없이 밝은 모습으로 연습에 임한 대원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준 소방서 관계자에 게도 감사 말씀을 전한다”면서 “작은 울림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게 큰 희망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소원했다.



나주시 의용소방대 단원들로 구성된 음악봉사단이 소방안전교육에 음악을 접목한 공연을 펼쳐 지역민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나주시의용소방대 제공)

이여 “공연 문의가 쇄도하고 지역민에게 한 발짝 다가선 것 같아 뿌듯하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의용소방대가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과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의용소방대는 재난 발생 시 동원돼 소방

업무를 지원하는 법정단체로 나주시에만 6면 별 총 32개대 65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대원 모집은 해당 대의 결원을 고려해 1년에 2-3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관할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우수 대원에게는 장학금, 선진지 견학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오복기자

호남대 한승훈 교수
한국섬포럼 국제학술대회 초청 토론



호남대학교 관광경영학과 한승훈 교수가 ‘제3회 섬의 날’을 맞아 오는 11일 한국섬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제2회 한국섬포럼 국제학술대회 한국도(섬)학회 세션에서 토론을 실시한다.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국회, 유관기관 및 학계 전문가, 그리고 섬 주민 등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방소멸시대, 지속 가능한 섬 발전 전략’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승훈 교수는 국무조정실 국가균형발전 광복분야 전문위원, 한국관광공사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지원 전문위원, 그리고 한국관광학회 부위원장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관광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임채만기자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조선대병원 교직원 응원 ‘커피트릭’

The-K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삼근)는 지난 9일 조선대병원(병원장 김경중)에서 교직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커피와 음료를 나눠주는 ‘The-K 매거진 신고 달려가는 커피트릭’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11시 반부터 3시간 동안 운영하기로 했던 커피트릭은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2시간 만에 재료가 소진되면서 1천여명의 교직원들에게 커피와 음료를 선물하며 사랑과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The-K 매거진 커피트릭 이벤트에 조선대병원원이 선정되면서 이뤄졌다.

김경중 병원장은 “사랑과 응원이 가득 담긴 커피 한잔으로 위로가 되는 훈훈했던 나눔의 현장이었다”면서 “커피트릭을 보내준 The-K한국교직원공제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교직원공제회의 ‘The-K 매거진 신고 달려가는 커피트릭’ 행사는 그달의 The-K 매거진과 함께 최종 선정된 사연을 신고 전국의 10개 교육·의료기관에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올해 연말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오복기자

전남도, 올 유기농 명인 5명 선정

무화과 공슬기·녹차 최창돈·오디 박성관·밀 오관수·유자 강상묵씨

전남도는 10일 “독창적 유기농 선도 기술을 보유하고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한 고흥군 공슬기씨 등 5명을 ‘2022년 전남도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작목 별로 ▲무화과 고흥군 공슬기씨 ▲녹차 보성군 최창돈씨 ▲오디 해남군 박성관씨 ▲밀 함평군 오관수씨 ▲유자 완도군 강상묵씨가 ‘유기농 명인’ 칭호를 획득했다.

전남도는 유기농 명인들의 명에 고취를 위해 지정서를 전달하고 농가에 현판과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2010년 전국 최초로 지정을 시작한 전남 유기농 명인은 3천300㎡ 이상 유기인증을 받고 유기농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면서 저비용의 독특한 유기농법 실천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올해는 벼·밭작물·과수·채소·축산·기타 등 6개 분야에서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5명을 확정했다.

무화과 유기농 명인 공슬기씨는 2010년 부산에서 고흥으로 귀농해 11년째 노지 무화과를 무경운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다. 관수시설 없이 토양 수분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

녹차 유기농 명인 최창돈씨는 교직에 있을 때부터 주말마다 농장을 오가며 유기농업 관련 공부를 계속했다.

오디 유기농 명인 박성관씨는 후계영농인으로 가업을 이어받아 유기농업을 하고 있다. 그동안 유기농업에 전념하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



수의 특허증을 보유하고 있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유기농 명인은 다양한 품목을 재배한 경험에서 비롯한 독창적 농법을 주변 농가에 공유하는 등 유기농업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친환경농업을 이끈 ‘전남 유기농 명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는 정책 발굴 등 아낌없는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총 26명의 유기농 명인을 지정했으나 고령으로 인한 이농 등으로 현재 22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지정된 유기농 명인 5명과 함께 유기농 명인 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간 300명 대상 유기농 전문교육 등을 할 계획이다. 이들은 전남 친환경농업 확대와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정기자



동부경찰서, 아동양육시설 방문 학교폭력 예방 교육

광주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10일 “하계 방학기간 동안 관내 아동양육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과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실시된 이번 교육은 여름방학 기간 중 학생들의 야외활동과 개인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비행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학교전담경찰관이 직접 시설 및 센터에 방문해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디지털세대인 청소년들이 사이버 범죄

에 쉽게 노출된 상황에서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단순한 놀이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사이버 범죄를 중심으로 실제 발생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갖도록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동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학부모 또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오복기자

목포 명품초밥스시 정동석 대표, 점심 나눔

목포 명품초밥스시 정동석 대표가 최근 관내 맞벌이, 소외계층 가정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점심 식사 나눔 행사를 펼쳤다.

정 대표는 초등학생들을 식당으로 초대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인 돈까스, 초밥, 롤, 우동, 메밀소바 등을 점심껏 제공했다.

정동석 대표는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식사를 지원하고 싶었다”며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길용 상정동장은 “아이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내준 정동석 대표에게 감사드린다”며 “민간과 협력해 봉사와 나눔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나주 해송식품, 담양 창평면에 김 120상자 기탁

나주시에 있는 해송식품(대표 김현선)이 담양군 창평면(면장 안영선)에 김 120상자를 전달했다.

해송식품은 창평제육회(창평드래곤즈 조기숙구회)와의 축구·풋살 친선경기 인연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에 폭염까지 겹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김 120상자를 전달했다.

/담양=정승균기자

김현선 해송식품 대표는 “어르신들 뿐 아니라, 돌봄 사각지대 아동들에게 어린이용 김 세트를 지원하며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홍복 창평제육회장은 “체육회와의 인연이 뜻깊은 나눔으로 이어져 기쁘다”며 “체육회에서 나눔 행사와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목포경찰, 초등생 대상 청소년경찰학교 체험 ‘호응’

목포경찰서는 10일 “최근 관내 초등학생 2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경찰학교 체험을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경찰 제복을 착용하며 제복이 주는 의미를 느끼고 스스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준법의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과학수사 체험(지문 채취 등)을 통해 경찰 신의감을 형성하고 초동 조치에 대한 기본사항을 이해할 수 있었다.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실제 경찰관들과 체험을 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며 “학교폭력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차복영 목포경찰서장은 “경찰학교 체험을 통해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 원인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학교폭력 근절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교통문화연수원, 교통안전문화 캠페인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은 10일 “폭염 집중기간(8.8-19일) 동안 광주지역 주요 택시 승강장과 버스 회차지 등에서 운수종사자 생수 지원 등 시민 교통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자원봉사센터 및 교통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캠페인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아파 여그에다 주차하든 쓰것소’ 캠페인과 최근 개정된 ‘횡단보도, 교차로 우회전 일단 멈춤’ 홍보 등 대시민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함께 펼친다.

또 유스퀘어, 공항 등 주요 택시 승강장에서 휴가철을 맞아 지역을 방문한 외지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택시 도어서비스, 트렁크 짐 실어 주기 등 교통봉사 활동을 통해 친절한 광주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백승근 교통문화연수원장 직무대행은 “폭염 사각지대 해소와 운수종사자 안전 운행과 친절 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식 계도활동을 교통단체, 시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대해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재영기자

부음

- 김태순씨 별세, 이상만(중흥그룹 부사장)씨 모친상=10일(수)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02-2072-2020), 발인 12일(금), 장지 전남 고흥군 선영.
- 원삼욱씨 별세, 김세환·천성(SK 에코플랜트)·효성(kb광주방송 보도국장)·희성(자영업)씨 모친상=8일, 광주 천지장례문화원 202호, 발인 11일 오전 8시, 장지 해남군 북평면 선영. (062-527-1000)